

고의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

등록 2018.12.10 09:19:48

【대구=뉴스시스】박준 기자·이재현 수습기자 =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.

대구 동부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(보험사기)로 A(29)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.

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(27)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지역에서 후진 중인 차량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부딪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23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
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.

또 이들은 파손된 휴대전화기를 들고다니며 사고 후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.

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.

june@newsis.com

ljh@newsis.com